

與 “정쟁 안돼” vs 野 “네탃 그만” 잼버리 공방

국힘 “대역전 드라마 위해 힘 모을 때...대회 끝난 후 문제점 개선” 민주 “윤 정부 15개월 동안 무슨 준비 했나...대안 마련해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권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몽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점을 들어 제기하는 전임 정부 책임론에 차단막을 치며 현 정권 책임론에 쐬기를 박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로 남 탓,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된다”며 “실질적 대안을 신속히 만들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잼버리 대회가 현실판 오징어게임, 생존 게임이 됐다”며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권의 남 탓 공세가 가득이나 더운 날씨에 짜증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했겠느냐”며 “잘되면 내 공, 못 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넘어 남 탓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라며 “남 탓, 전 정부 탓 그만하라. 정권이 들어서고 15개월이나 지났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도깨비 방

망이’는 전 정권 탓이나.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며 “정권 이양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 정권 탓을 할 거면 뭐 하러 집권에 나왔냐”고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된 평창올림픽을 정권 교체 후 짧은 준비 기간에도 성공리에 치러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운영 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악몽 같은 잔치가 됐다. 핵심적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였을 것”이라면서 “과연 이 정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얼마나 논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대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난 후에 면밀히 분석하고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자력을 보여 줄 시간”이라며 “세계적인 축제 자리에 폭염이라는 큰 시련을 만났지만 온 나라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다. 더위는 잊고 감동만 남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탓 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몽칠 때”라고 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왔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이라며 “나의 실패, 나의 실패가 없다.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라고도 말했다.

다만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익이 걸린 국제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 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도 나아가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대회를 두고 악몽, 영망진창이라고 단어를 쏟아내며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자학정치’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며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 중 새만금 잼버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흉악범 제압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용”

‘묻지마 범죄’ 강력 대응...총기 사용, 면책 규정 적용 방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과

정에서 유효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

다.

한 장관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민통합위 ‘국민통합 10대 지표’ 선정

이념 양극화 등 혐피에 게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통합 10대 지

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10대 지표는 ▲ 세계행복지수 ▲ 이념양극화 ▲ 환경갈등인식 ▲ 성불평등지수 ▲ 소수자 관용성 ▲ 지니계수 ▲ 공정성인식 ▲ 신뢰인식 ▲ 자살률 ▲ 부패인식지수 등이라고 통합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통합위는 매일 이들 지표와 데이터로 분석한 보고서와 인포그래픽 형태로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회 갈등은 매우 복합적 원인을 갖고 있다”며 “국민통합지표가 다방면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檢, 돈봉투 의혹 증거로 말해야”

“정황만으로 의원 명단 공개...언론플레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차원 진상 규명에 착수할지를 두고는 “당사자들이 다 사실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됐고, 윤 의원한테서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19명의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을 끊는 그런 행위”라며 “(검찰이) 매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운영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에서 사전에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며 “이것도 역시 리더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